

祝 辭

2018. 10. 17. (수) 15:10~15:15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지만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 전문가 분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3년 전('15.6월)

금융학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금융학회가 한결 같은

정부의 정책 동반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쟁점’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소중한 정책제언이 제시될 것으로 믿습니다.

2 금융그룹감독 논의경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애덤 투즈¹⁾와 같은 석학들,
IMF²⁾ 등 국제기구에서 그간의 명암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1) 콜럼비아대 교수 저서 'Crashed: How a Decade of Financial Crises Changed the World'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Chapter 2(The Global Recovery 10 Years
after the 2008 Financial Meltdown)

오늘 토론주제인 「금융그룹감독」과 관련해서도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한층 강화해왔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감독기구협의회*는
약 20년 전에 제정한 「금융그룹감독원칙」을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개정합니다('12년).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목적회사(SPC) 등 비규제영역,
대형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Joint Forum: BCBS, IOSCO, IAIS 및 각국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된 협의체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도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강화를 신속히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가 있었지만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간헐적으로 논의하는데 그쳤고
좀처럼 추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금융그룹감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금융그룹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6.29)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필요성과 당부말씀

다음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그룹, 특히 非은행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주요 금융선진국과는 뚜렷이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이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그룹들이 스스로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모범규준의 강제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상기하고
그룹 이름에 걸맞은 위험관리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등 시장에서도
그룹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금융그룹감독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인 만큼,
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셋째는 오피니언 리더인 학계에 대한 부탁 말씀입니다.

금융그룹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하셔서
제도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그룹감독의 편익은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서
도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반부실 사례*도 빈번하게 경험했습니다.

* 동서증권('97), 대한중금('99), 대우증권('00), 대한생명('02), 동양증권('13) 등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제도도입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 말씀

존경하는 학계 전문가 여러분,

美 진보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금융의 세계만큼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분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탐욕, 공포 등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위기의 반복을 완벽히 막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금융그룹 동반부실 사례는
제도를 잘 설계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국회 논의에 앞서
금융그룹감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걸러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